

2026 Spring

대입정보매거진

vol.136



고1칼럼

첫 지필평가를 대비하는
고1들을 위한 안내서

고2칼럼

모의고사 대비 학습 방법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 변화를 중심으로-

고3칼럼

스펙이 아닌 수업으로 증명하는
2027 학생부종합전형

대입뉴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

대입돋독

2028 대입제도 개편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각

대입코칭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2022 교육과정과
성적 체계 변화입니다

합격수기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업우수전형

합격수기

충남대학교
건설공학교육과
학생부종합1 일반전형

대입상담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안내

*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기획 및 제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고1칼럼

첫 지필평가를 대비하는 고1들을 위한 안내서

경기 새솔고등학교 교사 김태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에 최대한 빨리 적응해야 하는 숙제가 생깁니다. 특히 작년(2025학년도)부터 도입된 2022 개정교육과정(고교학점제)으로 인해 변경된 등급 산출 방법(기존 9등급 → 5등급) 및 새로운 교과서로 인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학교에서 공부하던 방식 그대로 고등학교 첫 지필평가를 준비하면서 생각과는 다른 시험 유형과 난이도로 인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시험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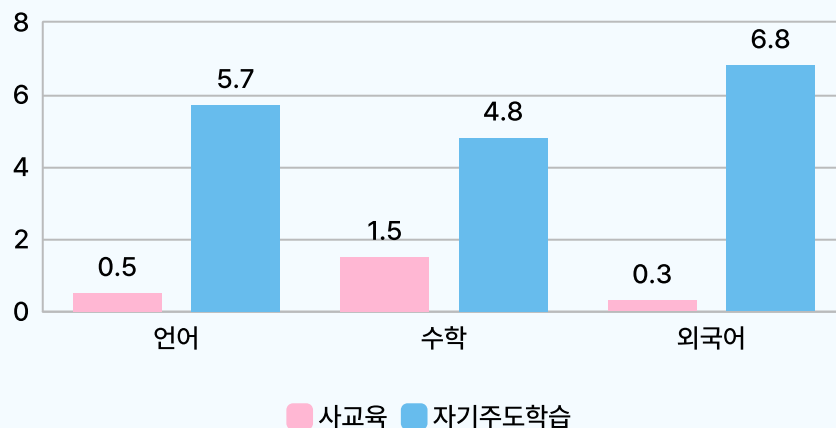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기주도학습시간의 확보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학원 혹은 과외,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매일매일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에 의해 나의 머리에 지식이 주입되는 것이며, 이를 스스로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자기주도학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보고 대비하는 예습도 필요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복습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습법에 맞추어 예습과 복습 시간을 확보하고, 성장을 위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사교육 vs 자기주도학습 효과 비교

(4년제 대학생 1,831명 대상 조사)



*출처: 김희상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분석'

2. 올바른 습관의 중요성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중학교 시험 대비를 위해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소위 벼락치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중학교에서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시험을 치르는 과목의 수가 많고, 시험 범위가 넓으며, 내용의 깊이가 깊은 고등학교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벼락치기라는 방식을 믿고 그날 해야 할 분량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나중에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습량을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의 일과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그날그날의 학습량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양을 정하고 달성하려는 올바른 학습 습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을 위한 강인한 체력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는 사이에 나의 체력은 서서히 깎여 갑니다. 따라서 적절한 학습량의 설정과 더불어 적절한 수면량, 정기적인 운동 등을 통한 체력 관리가 병행되어야 지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독서의 중요성

독서는 과목을 불문하고 중요합니다. 독서는 교양을 쌓는 창구의 역할도 하지만, 사고의 폭을 넓히고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자기 주도 학습법입니다. 어떤 책을 읽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해당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된 도서를 선정하고 연계하여 읽어 나갈 수 있다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메이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과의 학습 내용과 연계된, 혹은 여러 대학교 입학처의 안내서나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추천 도서 등을 확인한 후 독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첫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과목별 전략의 중요성

- **국어 영역**은 독해력과 이해력이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치르게 되는 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고등학교 지필평가의 지문은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교과서의 지문은 물론이고, 신문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등의 지문을 다양하게 접하며 독해력을 기르고,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는 이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소에 이런 긴 지문을 접하지 않고 바로 첫 지필평가를 치르게 되면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평소 독해력과 이해력을 키우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수학 영역**은 개념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개념을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응용문제가 출제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식과 풀이를 암기하는 방식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조금만 응용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원별로 학습 목표, 공식, 예시, 응용문제를 정리하고 풀이 방식을 기록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영어 영역**은 어휘력과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단어를 외우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합니다. 또한 꾸준히 단어를 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정작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적은 숙제 수준의 분량을 외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어휘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휘력 향상과 더불어 꾸준한 독해를 통해 지문을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사회와 과학 영역**은 단순 암기과목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과학은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나 실험 등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사고력과 응용력이 중요합니다.

학습 후 반드시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 이해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기출문제의 중요성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지난 시험의 기출문제를 보관, 관리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고 개념을 이해한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보게 될 시험의 기출 유형입니다.

따라서 위의 노력과 더불어 각 학교의 교과별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형을 파악하여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준비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며,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처음 맞이하게 될 지필평가라서 많은 걱정과 긴장이 되겠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얼마든지 대비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고2칼럼

모의고사 대비 학습 방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 변화를 중심으로 -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이진희

1. 변화의 파도 속, 고2가 마주한 현실

현 고등학교 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학년이다. 동시에 2028 대입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기 우려와 달리 내신 5등급제는 충분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전형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8 대입의 핵심은 '융합'이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으며, 반대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는 "나는 수시파니까 모의고사는 버려도 돼" 혹은 "나는 정시파니까 내신은 포기야"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에게 필요한 전략의 핵심은 수시 중심의 균형 잡기이다.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1학년 과목별 성적의 유불리를 분석하여 2, 3학년의 과목 선택과 내신 공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전형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면 희망 학과 및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은 필수이다. 이에 더하여 진로에 맞춘 심화 탐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이 성패를 가른다. 동시에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는 전형이 많아짐에 따라 모의고사 결과 분석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고2 모의고사의 진짜 의미: 점수 너머를 보라.

많은 학생이 모의고사를 과하게 맹신하거나 반대로 내신에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무시하곤 한다. 하지만 현명한 고2라면 그 중간에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모의고사는 크게 3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객관적 위치 파악이다. 내신과 달리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과목을 점검할 수 있다. 둘째, 실전 감각 배양이다. 수능과 동일한 형식과 시간 배분을 통해 실전에서의 긴장감을 관리하는 훈련이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시험 유형과 난이도를 직접 체험하며 경향성을 파악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모의고사는 재학생 위주로 실시되므로, 결과만으로 정시 합격 가능성을 선불리 단정 짓는 것은 금물이다. 결과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실력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3. 2026년 모의고사 일정 및 준비 전략

2026년 한 해 동안 치러질 주요 모의고사 일정과 시기별 대응 전략은 아래 표와 같다.

시험일(예정)	주관 기관	범위 및 특징
3월 24일(화)	서울특별시교육청	1학년 전 범위
6월 4일(목)	부산광역시교육청	2학년 1학기 개념 점검
9월 2일(수)	인천광역시교육청	여름방학 학습 성과 확인
10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2학년 과정 마무리 및 고3 대비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영역	과목	출제범위
국어	공통	(공통과목)공통국어1, 2 전 범위
수학	공통	(공통과목)공통수학1, 2 전 범위
영어	공통	(공통과목)공통영어1, 2 전 범위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1, 2 전 범위
탐구	통합사회	통합사회1, 2 전 범위
	통합과학	통합과학1, 2 전 범위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3월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는 1학년에 공부한 전 범위이다. 따라서 겨울 방학을 통해 1학년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2학년 공부할 내용을 대략 살펴봤다면 3월 모의고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학년 때 소홀했던 탐구 개념을 확인하고 복습하는 것이 2학년 전공 관련 선택 과목 학습의 장벽을 낮춰준다. 따라서 모의고사 준비와 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모의고사 준비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최근 3개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작성하여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우선 교육과정이 이전 학년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3개년 모의고사 문제만을 풀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2학년의 경우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 모의고사 자체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준비보다는 1학년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모의고사 시험 시간에 '수능'을 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성적표 분석과 오답 관리의 기술

시험이 끝난 후가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단순한 총점보다 더 중요한 정보들이 성적표 곳곳에 숨어 있다. 중요한 것은 시험 성적 자체가 아니다. 단순 점수보다 취약 단위 파악 및 오답 원인 분석이 훨씬 중요하다. 특히 오답의 원인을 단순 실수, 지문 해석 부족, 오개념, 시간 부족 등으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실수'이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 따라서 '실수'로 틀린 문항의 경우라고 분석된 경우에도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모의고사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려면 성적표에 기재된 수치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단의 문항별 분석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학년도 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학생용)				학 고 명				학 년		반 번호		성 명		실 시 일				
영 역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석차/백분위/등급				응시자수	해당등급 전국 인원수 [해당등급 전국 인원 비율(%)]								
	배점	득점	범위	득점	학급석차	학교석차	전국백분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국 어	100	71	0~200	125	2/25	14/158	87.80	3	345087	14995 (4.23)	25650 (7.43)	43954 (12.74)	56272 (16.31)	68969 (19.99)	58897 (17.07)	44720 (12.96)	21650 (6.27)	10380 (3.01)
수 학	100	69	0~200	122	5/25	18/158	84.47	3	344396	13902 (4.04)	24409 (7.09)	46929 (13.63)	52869 (15.39)	71617 (20.79)	55945 (16.24)	47263 (13.72)	20374 (5.92)	11088 (3.22)
영 어	100	56			원점수에 의한 등급 (5)				342557	21202 (5.19)	29247 (8.54)	47473 (13.87)	57833 (16.88)	55652 (16.25)	37445 (14.13)	30460 (8.89)	14843 (4.33)	
한 국 사	50	42			원점수에 의한 등급 (1)				341342	60988 (17.87)	37553 (10.00)	73562 (21.19)	40236 (11.78)	42164 (12.35)	42648 (12.49)	52722 (15.31)	26849 (7.87)	4848 (1.42)
탐 구	사회	50	33.5	0~100	54	8/25	55/158	58.80	4	340227	13717 (4.03)	30535 (8.97)	35400 (10.40)	68499 (20.13)	57866 (17.01)	46116 (16.93)	18535 (5.35)	11952 (3.51)
	과학	50	35.0	0~100	56	8/25	49/158	68.11	4	340227	21192 (6.23)	22800 (6.70)	38629 (11.35)	61368 (18.04)	63547 (18.68)	56993 (16.75)	41899 (12.32)	25066 (7.37)

국 어 영 역												수 학 영 역												영 어 영 역												보통학교에 필요한 문항 번호												기타 참고 자료											
세부영역	배점	득점	전국평균	세부영역	배점	득점	전국평균	세부영역	배점	득점	전국평균	국 어	수 학	영 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 역	상위자료	백분위	인원수																																						
어휘·개념	10	10	6.05	계산	12	12	8.78	듣기	25	25	19.15	국 어	8.15,17,27,28	영 어	국 어 + 수 학	20,13,24,43,37	한국사	9.6,17	사회탐구	15,19,22,6,24	과학탐구	24,18,11,7,16	영 역	상위자료 <td>백분위<td>인원수</td></td>	백분위 <td>인원수</td>	인원수																																	
시작지	23	14	13.50	이해	37	34	23.37	말하기	12	7	7.05	영 어	20,13,24,43,37	국 어 + 탐 구	88.24	343896	수 학 + 탐 구	80.15	339294	한 국 사	9.617	사회탐구	15,19,22,6,24	국 어 + 수 학 + 탐 구	83.10	339196																																	
주요지	30	22	13.63	추론	12	8	2.00	읽기	47	24	24.36	한국사	9.6,17	국 어 + 수 학 + 탐 구	77.38	339646	수 학 + 탐 구	77.38	339646	한 국 사	9.617	사회탐구	15,19,22,6,24	국 어 + 수 학 + 탐 구	83.10	339196																																	
비판적	22	16	9.22	평가	15	11.07	쓰기	16	0	5.46	사회탐구	15,19,22,6,24	국 어 + 수 학 + 탐 구	77.38	339646	수 학 + 탐 구	77.38	339646	한 국 사	9.617	사회탐구	15,19,22,6,24	국 어 + 수 학 + 탐 구	83.10	339196																																		
적용·창의	15	9	4.79	문제해결	39	15	11.07	쓰기	16	0	5.46	과학탐구	24,18,11,7,16	국 어 + 수 학 + 탐 구	77.38	339646	수 학 + 탐 구	77.38	339646	한 국 사	9.617	사회탐구	15,19,22,6,24	국 어 + 수 학 + 탐 구	83.10	339196																																	

영역·문항																											
국 어	영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영역	1	4	2	5	2	5	4	3	1	4	2	1	4	4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수 학	영역	1	4	2	5	2	5	4	3	1	4	2	1	4	4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 어	영역	1	4	2	5	2	5	4	3	1	4	2	1	4	4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한 국 사	영역	1	4	2	5	2	5	4	3	1	4	2	1	4	4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	1	4	5	2	3	4	3	1	4	2	1	4	4	3	5	5	2	2	2	5	3	4	3	1	1	1

영역·문항																											
탐 구	영역	1	3	2	5	1	2	5	2	1	1	1	3	4	5	2	5	4	3	3	4	4	2	5	3	1	2
	영역	1	3	2	5	4	2	5	2	1	1	1	4	2	1	5	4	2	3	4	3	4	3	5	3	1	2
	영역	1	3	2	5	4	2	5	2	1	1	1	4	2	1	5	4	2	3	4	3	4	3	5	3	1	2
	영역	1	3	2	5	4	2	5	2	1	1	1	4	2	1	5	4	2	3	4	3	4	3	5	3	1	2
	영역	1	3	2	5	4	2	5	2	1	1	1	4	2	1	5	4	2	3	4	3	4	3	5	3	1	2
한 국 사	영역	1	3	2	5	4	2	5	2	1	1	1	4	2	1	5	4	2	3	4	3	4	3	5	3	1	2
	영역	1	3	2	5	4	2	5	2	1	1	1	4	2	1	5	4	2	3	4	3	4	3	5	3	1	2
	영역	1	3	2	5	4	2	5	2	1	1	1	4	2	1	5	4	2	3	4	3	4	3	5	3	1	2
	영역	1	3	2	5	4	2	5	2	1	1	1	4	2	1	5	4	2	3	4	3	4	3	5	3	1	2
	영역	1	3	2	5	4	2	5	2	1	1	1	4	2	1	5	4	2	3	4	3	4	3	5	3	1	2

※ 영·영·한국사 영역은 원점수에 원점수에 의한 등급과 백분위를, 사회탐구(국사·사·사·사)는 원점수에 의한 등급과 백분위를, 탐구(과학·사회·과학

<모의고사 성적표 예시>

우선 성적표 상단에는 원점수와 더불어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따른 석차/백분위/등급이 제시된다. 표준점수는 시험 난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2학년에서는 표준점수보다 백분위를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또 학급이나 학교 석차보다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국백분위이다. 더 나아가 수능 최저를 고민하는 학생은 등급만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고2에서 중요한 것은 전국백분위이다. 즉, 동일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백분위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백분위를 통해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전 시험과 이후 시험과도 백분위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고2에게는 성적표 상단의 점수보다 중간의 영역별 점수, 그리고 하단의 문항별 채점 결과와 정답률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것을 토대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취약 영역에 대한 공부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성적표에서 친절하게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까지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영역의 '읽기' 영역에서 오답이 많은 경우와 '듣기'에서 오답이 많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 방법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틀리는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 학습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모의고사는 내신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고2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단순히 취득한 점수에 있지 않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점수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시 전형만을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2028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성실하게 모의고사에 참여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모의고사 분석은 내신 공부를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점수라는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 점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약점을 보완해 주는 가장 친절한 도구로 모의고사를 활용하기 바란다. 2028 대입의 문은 준비된 자에게 더 넓게 열릴 것이다.

고3칼럼

스펙이 아닌 수업으로 증명하는 **2027 학생부종합전형**

지금 듣는 수업이 여러분의 전형이 됩니다

강원 강릉명륜고등학교 교사 진수환

고3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학년이 올라갔다는 의미를 넘어,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정리하며 자신의 배움과 성장을 대학에 설명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특히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은 중요한 선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평가의 핵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만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전형이 아니라,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어떤 태도로 배우고 성장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따라서 고3 학생이 이 전형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활동을 급히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학은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학습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학업역량, 탐구역량, 진로역량, 자기주도성,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과 같은 핵심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은 별도의 스펙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의 수업 참여 태도와 학습 과정 전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기록된다.

많은 고3 학생들이 “이미 늦은 것 같다”거나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활동의 개수가 아니라 배움의 흐름과 일관성이다. 한 과목의 수업에서 제기한 질문,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보인 사고 과정, 모둠 활동에서의 협력 태도, 피드백을 반영해 자기 생각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은 모두 대학이 주목하는 평가 요소가 된다. 이는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며 자신의 학습을 책임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고3 시기의 수업은 더욱 중요하다. 입시 부담으로 인해 수업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학은 오히려 지원자의 가장 최근 모습인 고3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업 지속력과 학습 태도를 확인한다. 수업 중 제시된 개념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거나 다른 단원이나 과목과 연결해 사고하는 모습은 학업역량과 사고력을 동시에 드러낸다. 국어 수업에서 작품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사회, 과학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현실 문제와 연계해 질문을 확장하는 태도는 탐구역량과 비판적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수행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행평가는 점수 산출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를 탐색하며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해 표현하는 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 과정에서 주제 선정의 이유, 자료 해석 방식, 결론에 이르는 사고 흐름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학생의 학업 태도와 자기주도성을 드러낸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탐구 과정에서의 고민과 수정, 한계에 대한 인식은 문제해결력과 성찰 역량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진로와 전공 준비 역시 고3에게 중요한 과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말하는 진로역량은 특정 분야나 학과를 조기에 확정했는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관심 분야를 탐색하며 수업 속 학습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가 중요하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이를 수행평가나 독서 활동으로 연결한 경험은 진로 분야 탐색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기주도적 태도와 탐구 과정은 학생부 전반에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고3 시점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준비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각 교과 수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인식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는 서로 다른 학습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강조되는 역량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이러한 교과별 역량이 어떻게 축적되고 서로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어 교과에서는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수업 중 질문 제기나 토의 참여, 글쓰기 과정에서의 사고 확장은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동시에 드러낸다.

수학 교과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논리적 사고력과 끈기 있는 탐구 태도가 중요하게 평가되며,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태도는 학업역량과 문제해결력을 보여준다.

영어 교과에서는 언어 기능 자체보다도 의사 전달을 위한 이해력과 표현력이 중요하며, 지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거나 의견을 구성해 발표하는 과정은 학습 성실성과 자기주도성을 드러낸다.

사회 교과에서는 자료 해석과 관점 비교를 통한 탐구 태도가, **과학 교과**에서는 가설 설정, 실험 설계, 결과 해석을 통한 탐구역량과 분석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처럼 각 교과 수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학생의 역량을 요구하며, 고3 학생은 자신의 수업 참여 모습을 통해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법은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업 안에서의 태도와 과정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발표나 토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다음 수업에서 한 번의 질문이나 의견 제시부터 시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탐구 과정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수행평가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설정하고 자료 조사 과정을 충실히 기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업 전반에 걸쳐 반복될 때,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태도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게 된다. 부족했던 역량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 자체가 자기성찰 역량과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고3 학생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학교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수행평가를 단순한 과제가 아닌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지,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질문하고 토의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학업역량, 탐구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 역량은 서로 연결되며 함께 성장한다.

202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수업 중심 전형이다. 대학은 화려한 결과보다 교실 안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꾸준한 성장을 높이 평가한다. 고3에게 가장 확실한 입시 대비는 새로운 것을 급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수업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쌓인 배움의 흔적이 곧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학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담임선생님이다. 담임선생님은 수업 태도, 수행평가 과정, 학습의 변화와 성장, 교과별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학생부 전체 맥락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학생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드러난 강점과 부족한 역량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 이후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통해 평가요소와 전형 취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학생부가 해당 전형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과 상담을 바탕으로 학생부를 보완하고,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의 핵심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활동의 양이나 화려함보다 꾸준한 연계와 확장의 노력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다. 학교생활의 중심은 수업이며, 수업 속에서 보이는 태도와 학습 과정이 곧 학생의 역량으로 기록된다.

남과 비교하며 조금해하기보다, 지금 듣고 있는 수업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자신의 배움을 차분히 쌓아가길 바란다. 매 수업에서의 작은 질문과 성찰, 꾸준한 노력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학생부를 완성하고, 여러분만의 강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입뉴스

교육부

2026-01-28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①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적용 대상 학년 : ('26학년도) 고 1~2학년, ('27학년도~) 고 1~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

* 한국어학급 이주배경학생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과 같이 학점 이수 기준의 별도 적용 검토

② 미이수 학생의 학점 취득 기회 마련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하여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신청 후,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하고, 2/3 이상 출석 시 이수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하여 수강 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목 미이수 학생이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화한다.

* 운영 일정(안): 공통 과목 대상으로 운영('26.3.~) → 선택 과목 단계적 운영 확대('26.9.~)

③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추가 배치('26, 777명)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26 1학기~, 157억 원)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과목**을 통해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26.1학기~, 10개 시도, 20여 개 대학 참여 예정)한다.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이수 노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이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각종학교(각 시도별 1개교)

**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 중 고교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새롭게 구성한 과목(시도교육청과 대학이 공동 개발)

④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의 학습 결손 예방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26.2.)하고, 여기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학습 이력과 성장기록은 학년이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초학력 전문교원의 확충('26, 534명 이상)과 1교실2교(강)사제* 확대 등을 통해 수업 중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 ('25) 4,481교(전체 학교 중 37%) → ('27) 7,200교(전체 학교 중 60%)

⑤ 기초학력 지도 연계 등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착근 지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한다(탑재 완료). 그리고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 대상자 선정 방법 연계, 기초학력 지도 시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인정, 업무 처리 일원화 등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글자 수는 축소한다(각각 500→300자, 700→500자).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의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해당 과목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⑥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확대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하여 보급한다.(~'26.1.,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 등 탑재 예정) 이와 함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500명)을 운영하여, 고교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실시하여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한다.

* 상담 신청처 :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

(대입상담교사단)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또는 1600-1615

** (교육부) 권역별 설명회 6회('25), 고교학점제 포함 대입설명회 4회('26.1.)

(교육청) 중학교 대상 설명회 1회 이상 실시(~'26.2.), 시도별 학생·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등

⑦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교육부-시도교육청(시도고교학점제지원센터)-한국교육과정평가원(중앙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 지역 내 선택 과목 개설 확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보완 사항 확인, 과목 미이수 학생 및 졸업유예자 관리 및 지원 방안, 학점제 운영 성과 공유 확산 등

2028 대입제도 개편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각

경기 남양주다산고등학교 교사 조만기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2023년 12월 27일 발표되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받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 수업과 평가 방식의 재설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내신 산출 체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특히 상대평가와 성취평가가 함께 기재되는 새로운 체제, 그리고 대학이 제공받는 평가 정보의 확대는 단순한 등급 변화 이상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2028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또한 올해 1월 부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과 함께 2028학년도 대입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2028 대입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1. 2028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변화

2028 대입제도 개편은 단순히 내신 산출 방식이나 수능 과목 조정이 아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연동된 국가 수준 평가 체제의 재구조화로 이해해야 한다.

통합형·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체계	고교 내신체제 개편
국어·수학의 선택과목 폐지 → 공통 평가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개편
사회·과학 탐구, 직업탐구 영역 선택 폐지 → 통합 기반 공통 문항	석차등급 기준: 상위 1등급(~10%), 2등급(~34%), 3등급(~66%), 4등급(~90%), 5등급(~100%)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 유지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함께 기재
EBS 연계율 50% 유지	성취도 기준: A(90%), B(80%), C(70%), D(60%), E(40%), I(미도달)
	대학 제공 정보 확대: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성취도별 구분 점수, 수행평가 영역명, 수행평가 비율 등

a. 통합형·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체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형식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선택형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대학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일원화된 점수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학의 경우, 기존처럼 미적분·기하·확률과통계 중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수·미적분·확률과통계를 공통으로 응시한다. 이는 사실상 현재 인문계열 응시 구조에 가까운 체제다.

다만 자연계열 학과에서 요구되는 미적분II와 기하 이수 여부를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향후 중요한 변수다. 정시에서도 서류평가 또는 가산점 방식으로 수학, 과학 교과 과목 이수 여부를 검토하는 대학이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모두에게 필수로 적용되면서, 특히 통합과학이 상위권 변별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학과 통합과학이 상위권 성적대를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수능위주 전형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대학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고교기여사업 자율형 공모사업 등에 따라 일부 대학은 비율을 하락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등급제로 인한 내신 변별력 약화 우려로 정시 준비 수험생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 고교 내신체제 개편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다소 다르다. 1학년 1학기까지의 '올 1등급' 비율은 서울교육청 1.72%, 부산교육청 2.07%, 경기진학지도협의회 1.74%로 발표되었다. 특히 부산의 경우 1학년 2학기까지 유지 비율은 1.30%로 감소하였다. 단순 추정 시 고3 1학기까지 유지 비율은 약 0.37%, 전국 약 1,5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의약계열 수시 선발 약 4,600명, 서연고 약 7,200명 등을 고려하면 2등급 2~3개 수준에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구조임을 시사한다.

더 중요한 점은 대학이 제공받는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다. 단순 등급이 아니라 성취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수행평가 비율 및 영역명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급은 완화되었지만, 실제 평가는 오히려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2. 예상되는 대입전형의 변화와 대응 방안

- **학생부교과**: 수능최저기준의 변화, 면접 및 서류평가로 교과성적 보완 가능성
- **학생부종합**: 과목 이수 내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요성 증가, 수능최저기준 신설 및 면접 강화
- **논술위주**: 고교 현장의 논서술형 평가 강화로 인한 논술 신설 대학 증가와 논술 실시 형식의 변화 예상
- **실기/실적위주**: 출결 반영 비율 증가로 성실성 평가 강화
- **수능위주**: 고교학점제 실시로 인한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교과성적 정량평가, 출결 반영 등) 반영하는 대학 증가 예상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갑자기 실시된 정책이 아니다. 고교학점제 실시를 기반으로 꾸준히 준비를 해왔던 방향이다. 그로 인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대입에서는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과 연계 과목 선택의 맥락있는 지도와 의미있는 활동

수업 기반 학습 충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와 기록

성실한 출결 관리를 기본으로 학교 생활에서 공동체 역량 강화

수시에서도 수능최저기준 적용 증가에 따른 수능 기본 실력 확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성실히 이수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비가 가능하다. 이제는 발표 전 내용을 두려워하기보다, 4월 30일 이후 각 대학이 발표할 2028학년도 시행계획을 차분히 분석하고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입시는 바뀌고 있지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본질적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업을 충실히 받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성실히 이수하며, 기본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대비 가능한 입시가 될 것이다.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2022 교육과정과 성적 체계 변화입니다

경기 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이주민

유튜브가 키우는 불안감

유튜브는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시와 관련한 유튜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입니다. 2025학년도(현재 고2)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2023학년도 고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처음 적용되는 시기가 아니라 전면 시행된 시기입니다. 2025학년도(현재 고2) 고교학점제 이슈의 근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변화입니다. 9등급 체계는 2005년에 도입된 이래 약 20여 년을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체계가 변화하면서 학생들은 대입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기존 2015 교육과정에서 2022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면서 과목 체계가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방향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교학점제 도입 경과 (일반고)

구분	2019~2021년 (기반조성)	2022~2024년 (운영체제 전환)	2025년 (전면 적용)
단계	연구·선도 학교	경기 고교 100% 연구·선도 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비고	학점제·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시범 적용		* 전과목 이수제 도입·적용 (고1부터)

<출처 : 경기고교학점제 홈페이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일정

- ▶ '22년 12월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고시
- ▶ '24년 3월 : 유치원, 초1~2학년 적용
- ▶ '25년 3월 : 초3~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적용
- ▶ '26년 3월 : 초5~6학년, 중2학년, 고2학년 적용
- ▶ '27년 3월 : 중3학년, 고3학년 적용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질의응답 자료>

교과학습발달사항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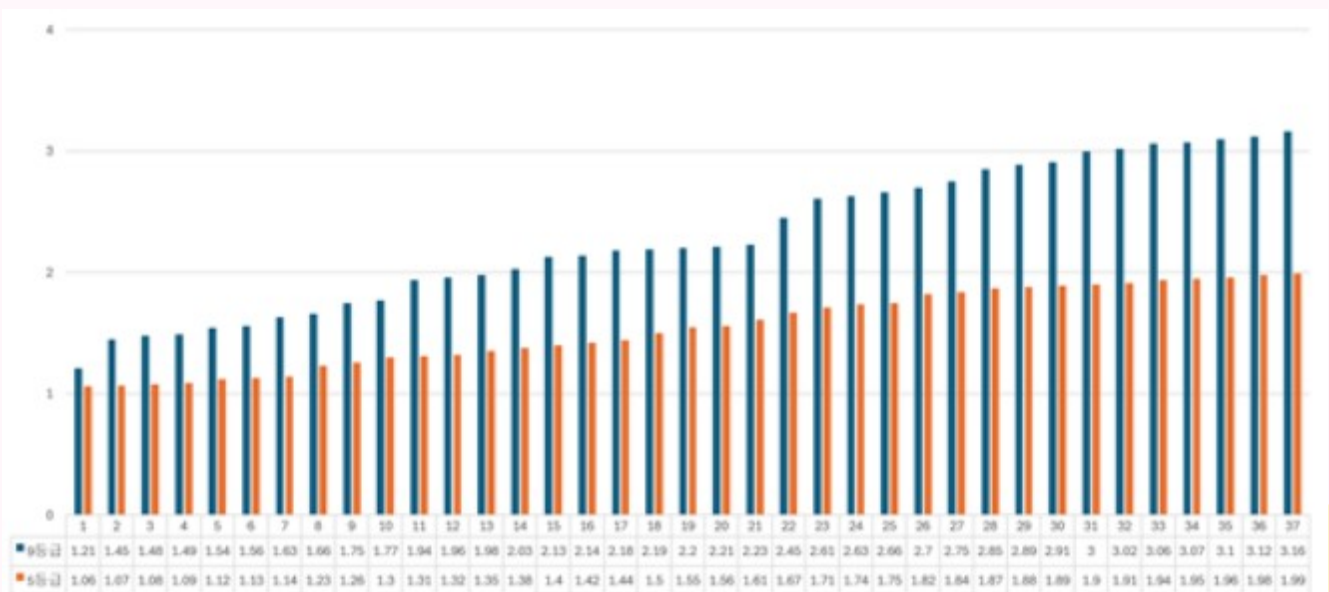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2026 대입을 치른 학생의 대입전형 자료 중 교과 학습발달사항>

어느 정도 성적이면 어느 정도 대학에 진학 가능한가?

새로 바뀐 성적 체계 때문에 9등급 체계와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부분인 '어느 정도 성적이면 어느 정도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초반에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모두 1등급이 아니면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다'였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상위 10%까지 1등급을 주는 5등급제와 상위 4%까지 1등급을 주는 9등급제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상위 10%까지 1등급을 주는 5등급제에서 내신을 받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 기관이나 입시 전문가들은 모두 1등급인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1%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 교육청은 '3학년 1학기까지 최종적으로 1.00을 유지하는 학생은 전체의 0.3%~0.6%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1.00을 받는 학생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아이가 2025학년에 고1(씩 공부에 흥미는 없는 녀석이지만)이라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받으면 되는지 말은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나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학교는 전교생이 약 270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의 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한 과목당 이수 학생도 60명~120명 수준입니다. 이 학생들의 원점수를 바탕으로 5등급제로 변환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이면 4%까지 1등급이 아니라 원점수 기준 상위 10%까지 1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수영사과만으로 평균 등급을 내었을 때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9등급제 학생들의 국수영사과 원점수를 기반으로 5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등수 기준 대응>

단위 학교만의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은 없었으며 동점자 없이 대체로 변별이 잘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9등급제에서 3등급 전후의 학생이 경기대 정도를 교과전형으로 합격하는 것을 고려하면 5등급제에서 1점대 후반 성적만 받아도 경기대 정도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입은 눈에 보이는 등급이 아니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등수로 선발함). 경기진협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5등급제에서 2.0 수준이면 경기대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5등급제 등급 평균		누적비	경기 누적비 대응 경기 9등급	한산 9등급 대응 2025 대입 70% cut 대학			
(6과목 등급 합)				교과(인문)	종합(인문)	교과(자연)	종합(자연)
1.000	(6)	1.74%	1.55	고려대 학교추천 국어국문과	서울대 지균 불어교육	한양대 교과(추천형) 기계공학부	서울대 지균 조선해양공학
1.167	(7)	3.58%	1.84	경희대 지역균형 경영학과	연세대 활동우수형 교육학부	홍익대 학교장추천 전자 · 전기공학부	연세대 활동우수형 화공생명공학부
1.333	(8)	6.05%	2.14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경영학부	한국외대 종합(서류형) 경영학부	송실대 학생부우수자 전자공학	건국대 KU자기추천 화학공학부
1.500	(9)	8.84%	2.42	송실대 학생부우수자 글로벌통상학과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사학과	세종대 지역균형 기계공학과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원자력공학과
1.667	(10)	12.01%	2.7	경기대 교과성적우수자 경영학부	국민대 프론티어전형 경영학부	한양대(에리카) 지역 균형 ICT융합학부	인하대 인하미래인재 신소재공학과
1.833	(11)	15.50%	2.95	경기대 교과성적우수자 글로벌어문학부	송실대 SSU미래인재 경제학과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기계공학부	광운대 참빛인재(면접) 전기공학과
2.000	(12)	20.05%	3.24	경기대 학교장추천 무역학과	명지대 명지인재서류 자율전공(인문)	경기대 교과성적우수자 산업경영공학과	아주대 ACE전형 프런티어과학학부
2.167	(13)	24.89%	3.51	서울여대 교과우수자 일어일문	명지대 명지인재면접 국제통상학전공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도시계획 조경학부	경기대 KGU학생부종합 AI컴퓨터공학부
2.333	(14)	29.91%	3.76	수원대 교과우수 아동가족복지	가천대 가천바람개비 사회복지학과	을지대 지역균형 자연 계열학부	가천대 가천바람개비 화공생명배터리공학
2.500	(15)	35.37%	4.01	성결대 교과성적우수자 사회복지학과	삼육대 세움인재 영어영문학과	강남대 지역균형 인공지능융합학부	중앙대(다빈치) CAU 융합형 식품영양

<경기진협 발표자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5등급제도 변별이 잘 되고 있으며 모두 1등급인 학생들이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원인이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늘어나면서 한 과목당 이수하는 학생이 1학년보다 2학년에 줄어들게 되면 상위 10%라 하더라도 1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2015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2022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3학년 1학기까지 최소 10번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등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끌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 기본에 충실하며 지나치게 속단하지 않기

입시에서 기본은 내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누구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에서 내신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성실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내신을 바라 볼 때는 단순히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성실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신을 잘 챙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1등급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입전형자료에 등급뿐 아니라 성취도도 제공됩니다(2027 대입까지는 진로선택과목을 제외하고 등급만 대학에 제공함). 그러면 1등급은 받지 못했어도 성취도는 A를 받으면 교과전형은 아니어도 종합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점수가 90점을 넘게 받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는 아래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구분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주요 사항
학생부 반영방법	-공통/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상대평가(교과 등급) 반영 * 단, 성취도만 제공되는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은 미 반영 -탐구교과(사회/과학)의 진로선택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 반영 예) 석차 3등급, 성취도 A의 경우, 상위 성적인 성취도 A=1등급으로 반영 -대학 계열별로 학생부 교과 다르게 반영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별 전체 과목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1,2) 교과별 전체 과목 자율/자유전공학부 등: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별 전체 과목 예술/체육: 국어, 영어 교과별 전체 과목
교과이수 권장과목 대입반영	-인문계열/자율·자유전공학부: 없음 -자연계열: 대학 자연계열 학문분야 교과이수 권장과목 수정 안내(2025.8.28.) 핵심·권장과목과 그 외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성적으로 평가 반영 * 핵심과목-중요하게 긍정평가, 권장과목-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긍정평가

<출처 : 2028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대학은 새로운 성적 체계에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입전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과목 1등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입 전략이 실패한 것은 아니므로 선부르게 자퇴한다거나 내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 활동은 추가하는 것이지 중심이 아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나 학과는 단순 내신만으로 학생을 변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9등급제에서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거나 교과평가를 포함하여 교과전형에서 학생들 변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과전형에서도 교과세특을 학생부종합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챙겨야 합니다.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배웠으면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 문학은 연구해도 좋고, 1970년대 노동 현실을 분석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해외에도 이런 문학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중심에는 학생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우기 위해 활동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며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답해 준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질문하고 활동해야 정말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학년 올라가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꼭 1학년 때 자녀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이를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입시는 학생이 준비하고 학생이 노력하여 학생이 치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입시를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성적이나 태도 등을 질책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대입 정보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며 진로를 고민하거나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거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살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학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입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나의 정보만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말이면 대학이 2028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때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자녀 지도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 교육과정으로 치르는 첫 입시인 2028 대입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합격생

문정현 |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6학번

학생부종합 학업우수전형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6학번 문정현입니다.

화공생명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에서 화학 과목을 심화적으로 학습하면서 반응 메커니즘과 분자 수준의 상호작용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촉매 작용, 반응 속도론, 약물 전달 시스템과 같은 주제를 탐구하며 화학 지식을 실제 기술로 연결하는 과정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 화학적 원리가 생명 현상과 결합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학의 실용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생명과학을 공학적으로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화공생명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우수전형(학생부종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학업우수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전 과목 내신 성적을 꾸준히 관리하며 학업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 제가 목표한 전공과 해당 교과과목과 관련된 심화 탐구를 스스로 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수시 지원에 필요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모의고사 성적도 놓치지 않고 모든 과목을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학업 관리를 통해 학업 우수 전형에 맞는 인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고급화학 수업에서 분자 오비탈 이론을 바탕으로 이핵 이원자 분자에 대해 심화 탐구를 진행한 경험입니다.

결합성, 반결합성 오비탈과 에너지 준위를 정리하고 분자의 반응성과 전자 구조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이 체내 단백질과 결합할 때의 상호작용도 오비탈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약물 표적 단백질 결합 원리까지 확장해 정리하며 화학 이론이 생명 관련 시스템에 적용되는 과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탐구가 분자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과 바이오 응용을 다루는 화공생명공학과와 가장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부족했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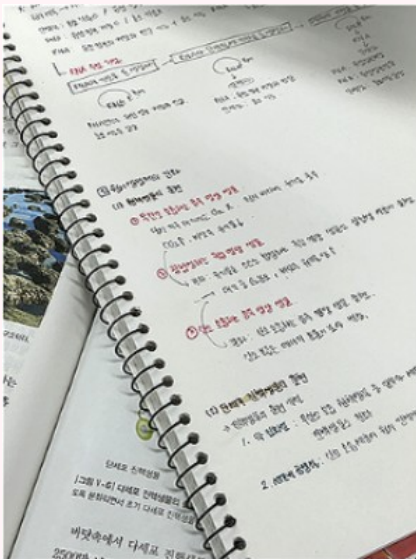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교 수업과 심화 탐구, 수능 대비를 동시에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탐구 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싶었지만 시간 관리가 부족해 아쉬움을 느낀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내신 시험 준비를 할 때면 수능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목표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 해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을 꾸준함과 균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 관리에 집중하면서도 전공과 연결된 심화 탐구 활동을 지속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함께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또 눈앞의 결과에 흔들릴 때도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와 성실한 준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는 자꾸만 불안을 일깨울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은 충분하며, 매일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탓하거나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담하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도교사

김예리 | 경기 한민고등학교 교사

문정현 학생이 화공생명공학과(학업우수전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학생은 학업 수준 면에서 3년간 전 과목 내신 최상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학업 전반에 걸쳐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화학I, 화학II, 고급화학 루트를 선택하면서 화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넘어서서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과 개념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확장하는 사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교과 개념을 물리학, 생명과학과 연관 지어 탐구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고 화공생명공학 전공의 학문적 성격과 잘 맞는 학생이라 여겼습니다.

지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지도방향이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이미 학업 성취도가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단순한 성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화학 개념을 심화·확장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고급화학까지 수강했던 학생이므로 화학 전반의 내용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심화할 수 있도록 분자 오비탈 이론, 반응 메커니즘, 촉매 및 반응 속도론 등 화공생명공학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의 깊이를 더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교과 개념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생명과학적 현상이나 산업적 응용과 연결해 사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학업우수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 전 과목 성적의 안정적인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학습 계획 수립과 시간 관리 전략을 점검하였습니다. 내신, 심화 탐구, 수능 준비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활동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전공과의 연계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흐름을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서술을 통해 학생의 탐구 태도와 학문적 성장 과정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업우수 전형의 취지에 맞게 학생의 깊이 있는 교과 이해와 확장된 사고력이 생활기록부 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도록 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도교사의 시선에서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도교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명된 학업 역량과 전공과 연결된 사고의 깊이였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 학업 성취도의 기복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자기관리 능력과 학업 지속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였습니다.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학습을 이어가는 태도는 학업우수 전형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화학 교과에서 분자 오비탈 이론과 반응 메커니즘을 탐구하며 이를 생명 현상 및 공학적 응용과 연결하는 과정은 전공 적합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완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탐구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학생은 교과 기반의 이론 이해와 개념 확장 능력이 매우 뛰어났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를 실험 설계나 공학적 모델링 단계까지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성취도를 유지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담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조절하며 보다 도전적인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면 학문적 성장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역량의 부족이라기보다 이미 갖춘 탄탄한 기초 위에 경험과 환경이 더해진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화공생명공학과(학업우수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적의 우수성뿐 아니라 학업 역량의 신뢰도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형은 특정 과목의 뛰어난 점보다 전 과목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취를 높게 평가하므로 단기 성적 향상보다 장기적인 학습 루틴과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내신과 수능 준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화학 개념을 단순 암기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개념을 실제 공정이나 생명 현상과 연결해 사고하도록 유도하거나 화학과 생명과학의 교차 지점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전공 적합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에서는 활동의 양보다 흐름과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교과 기반 탐구가 심화·확장되는 과정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완벽함보다 지속성과 꾸준함을 강조하는 정서적 지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박해정 |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Q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업우수전형(학생부종합)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고려대학교는 학업우수전형에서 학업역량과 자기계발역량, 공동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우선 학업역량에서는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기초 수학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반적인 교과 성취도와 더불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주도적 노력을 비중 있게 검토합니다. 자기계발역량은 관심 분야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화공생명공학 계열에 대한 탐색 과정과 깊이 있는 탐구 능력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역량에서는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 리더십 등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인성을 평가합니다.

Q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연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올해 전형에서의 주요변경 사항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시 계열별 수능 지정응시과목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확률과 통계'나 '사회탐구'를 선택한 지원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올해 화공생명공학과와의 경쟁률은 21.6:1을 기록하며 전년도(18.19:1)보다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화공생명공학과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 증가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 이슈에 따른 상위권 지원자 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2025학년도 전형부터 면접 없이 서류 100%와 수능 최저학력기준만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방식으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고교 3년간 화공생명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생기부를 착실히 관리해 온 '준비된 지원자'들이 대거 소신 지원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Q 해당 연도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업우수전형 화공생명공학과에는 총 324명이 지원하여 최종 15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학업 역량 면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계열관련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탁월한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권장 이수 과목을 충실히 이수함으로써 공학적 기초 역량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생명·화학·생명공학 등 관련 분야의 동아리 및 탐구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탐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동체 역량 측면에서는 개인별 리더십 활동의 형태는 다양했으나, 합격자들 대부분이 출결 관련 기록은 특이사항 없이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본질인 '학교 생활의 충실함'이 합격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Q 문정현 합격생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완·강화하면 좋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문정현 학생은 지원자 풀 내에서도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화공생명공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 과학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동아리 활동을 2년간 꾸준히 하였으며 3학년 역시 과학탐구 동아리에서 생명과학 및 나노입자 관련 탐구를 지속하였고 생활기록부 전반에서 화학과 생명공학에 대한 일관된 관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계발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지각, 조퇴, 결과 사례도 없이 성실한 출결 기록이 뒷받침되어 성실한 학교생활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타 지원자들에 비해 리더십 활동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큰 직책이 아니더라도 학생부 내에서 리더십 경험이 좀 더 드러났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일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가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 온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수업 시간의 작은 호기심을 탐구로 잇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고민했던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교실에서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즐겁고 알찬 고교 생활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자 열정을 마음껏 불태울 수 있는 넓은 무대가 되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를 꿈꾸는 모든 학생 여러분을 이곳에서 꼭 만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며, 여러분의 노력이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합격생

전건후 | 충남대학교 건설공학교육과 26학번

학생부종합1 일반전형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의 일반고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학생부종합1 일반(300)전형으로 입학한 충남대학교 건설공학교육과 26학번 전건후입니다. 학과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건물이나 도로 같은 삶의 기반을 만드는 '건설 기술'을 배우는 것은 물론 이를 미래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교육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건설공학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고등학교 시절의 저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업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막연히 사범대 진학을 고려했었죠. 2학년 때 문득 '남들이 좋다는 길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평소 흥미 있던 공학적 설계와 누군가를 가르치는 보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찾게 된 곳이 바로 건설과 교육을 동시에 탐구할 수 있는 우리 건설공학교육과였습니다. 확신이 생기니 그때부터는 입시 준비가 더는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부종합1 일반전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가장 공을 들인 건 생기부 스토리와 면접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나 공부 잘해요'가 아니라 건설공학'교육' 이어야만 하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제 생기부를 낱알이 분석하며 "왜 꼭 충남대여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리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실제 면접장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제 신념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죠. 결국 스스로 내린 확신이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들께도 진심으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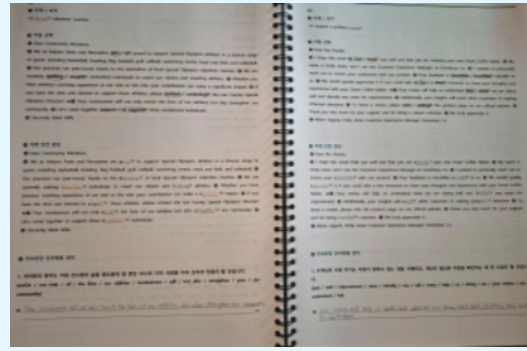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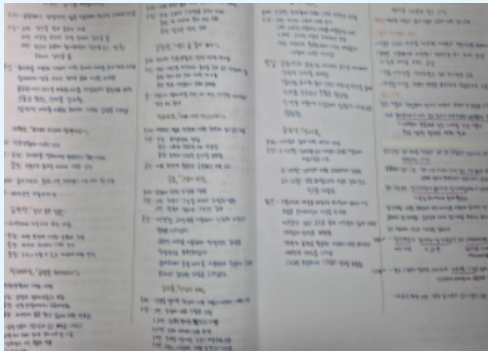
3학년 때 전기, 건설, 컴퓨터, 코딩의 다른 꿈을 가진 친구 4명이 모여 진행했던 '스마트 하우스 모델 제작'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금방 탐구활동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센서를 달고 코딩을 입혀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형에 넣는 과정이 정말 까다롭고 힘들더라고요. 관심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이라는 하드웨어에 전기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건설공학이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깨달음은 실제 면접 답변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부족했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건 '확신이 없던 시간'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2학년 때까지도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못했다 보니 이미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탄탄히 채워온 친구들을 보며 너무 늦은 거 아닐까하는 불안함이 컸거든요.
특히 건설과 교육이라는 두 분야를 연결하려다 보니 어느 한쪽도 깊이가 부족한 것 같아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건 수학과 물리 같은 기초 공학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사범대를 생각하다 보니 공학 기초를 조금 소홀히 했던 게 나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꼭 우리 학과가 아니더라도 기초 과목은 절대 놓지 말라는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조금 늦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라면 그게 정답이라는 용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만의 융합 스토리와 솔직함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되고 싶다가 아닌 건설공학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생기부 곳곳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했거든요. 남들과 똑같은 사범대 준비 수험생이 아니라 우리 학과에 딱 맞는 맞춤형 인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점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늦게 시작했다는 불안함도 있었고 스마트 하우스 모델을 만들 때처럼 이게 될까 싶은 순간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끝까지 해내면서 얻은 자신감이 제 말투와 표정에서 드러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과 발표가 나면 누군가는 날아갈 듯 기쁘겠지만 또 누군가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마트 하우스를 만들며 숭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지금의 결과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 땅을 다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듯 여러분도 지금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후회가 남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이루지 못했다면 차라리 시원하게 남 탓 한 번 하고 무언가를 위해 끝없이 달려온 자신을 충분히 안아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고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지도교사

최성용 | 대전관저고등학교 교사

전건후 학생이 건설공학교육과(학생부종합1 일반전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이공계 분야 중에서도 건설이나 건축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해당 분야의 주도적이고 깊이 있는 여러 탐구 활동들의 기록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이수한 교육과정 내용도 물리학I, 물리학II를 선택하여 이수하고, 공동교육과정으로 물리학실험을 이수하는 등 이공 계열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도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멘토링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학구적인 모습이 여러 교과 세부특기 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등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들 또한 잘 기록된 학생이었습니다.

출결 부분에서도 요즘 흔히 볼 수 없는 여러 학년의 개근인 점 또한 해당 학과 지원 시 조금이나마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건설공학교육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지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지도방향이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건설, 건축 분야의 탐구 활동에 대해 3학년 때는 심도있는 수준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학교육과라는 학과가 공학 계열이지만 동시에 사범 계열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학과이므로 이공계에서 필요한 탐구역량, 전공역량 외에도 협동심, 봉사정신 등의 인성적인 태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탐구활동(또래 멘토링 등)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예비 이공계 대학생으로서의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서 과학적 탐구 역량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탐구 활동에서 실제 탐구한 세부적인 내용 및 탐구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의 모습들이 상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공계 및 사범계 학생에게 필요한 협동 정신이나 봉사 정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의 기록에도 신경을 쓰며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도교사의 시선에서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탐구 참여 기록이 아닌 적극적인 탐구 활동 참여 및 자세의 기록이 돋보인 학생으로 건설, 건축 분야에 대한 깊이있고 연속적인 탐구 활동들의 기록이 건설공학교육과 합격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 외에도 입시를 준비하기 바쁜 3학년 시기에 물리학실험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1,2,3학년 때 3년간 건설과 관련된 진로연계 공동교육과정을 꾸준히 이수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에서 해당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동기 등을 생활기록부 및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준비하여 참여한 것이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 특성 상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완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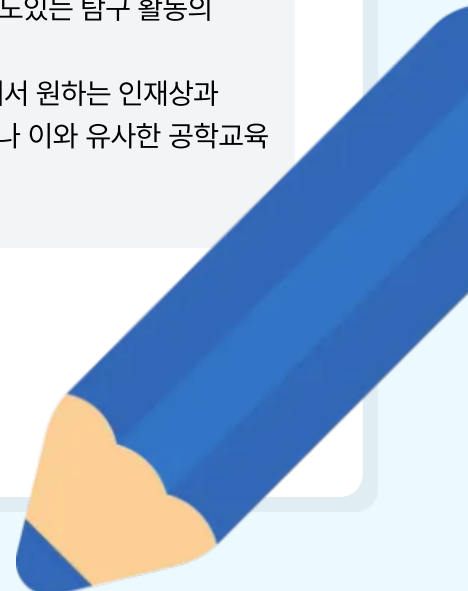
다양하고 꾸준한 지원학과 관련 탐구 활동의 기록이 우수한 점인 반면, 이공계열 교과(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계열 등)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해당 교과의 여러 성취기준 자체의 도달 정도에 대한 기록은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공계열 주요 교과와 내용학 자체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에 대한 기록도 같이 한다면 더욱 서류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공학교육과(학생부종합I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학계열 학과인만큼 2,3학년 때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성이 명확한 학과인 만큼 탐구 활동 측면에서도 해당 분야(건설, 건축 등)의 탐구 활동이 꾸준하고 심도있는 탐구 활동의 기록으로 이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범계열 성격이 함께 있는 학과이므로 학급 멘토, 교과 멘토 등 사범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건설공학교육과나 이와 유사한 공학교육 관련 학과 진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이동훈 | 충남대학교 입학사정관**Q** 충남대학교 건설공학교육과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일반)의 기본 평가요소인 학업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세부적인 요소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성적 추이,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의 적절성, 학습 경험 충실도 및 교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습 태도 및 학업의지, 공동체 구성원과의 의사 소통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학교육과는 수학 및 과학(물리) 교과에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중점적으로 선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범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면접평가 단계에서는 교직 인·적성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향후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연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6학년도는 2025학년도와 비교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상의 별도 변화는 없었으나, 전체적인 지원 현황에서 큰 변동이 있었던 학년도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쟁률은 2025학년도 12.31에서 2026학년도 14.59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공학교육과의 지원자 수 또한 2025학년도 23명 에서 2026학년도 55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서류평가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면접평가까지 완료된 이후 최종등록자의 전체적인 등급대가 0.3등급 정도 높아진 경향이 보이며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 보니(3명) 합격한 학생들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Q 해당 연도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공통적으로 건설공학교육과의 합격한 학생들은 수학 교과군에서 미적분, 기하를 이수한 학생들이며 과학 교과군에서 물리학 I,II를 이수하고 추가로 물리학 실험까지 이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주제는 차이가 있으나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전반적으로 건축계열에 집중하여 이수해 온 학생들이며 일반적인 교과활동은 해당 교과와 관련된 주제로 학습해 왔으나 자율적 교육과정에서 계열과 연관된 주제를 이수해 온 학생들이입니다.

Q 서류 평가 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서류평가 대상자가 선발인원에 비하여 많기에 첫 번째로 이수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수과목에서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이공계열의 학과인 만큼 입학 이후 학업에 중요한 과목들인 수학 및 과학 교과군의 심화 과목(ex. 미적분, 기하, 물리학II 등)의 내용들과 성취도에 집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과에서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계열과 연관된 활동과 단체활동 내부에서 학생의 역할로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추가로 활동 중 다루었던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소감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했습니다.

Q 전건후 합격생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완·강화하면 좋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6학년도 건설공학교육과 지원자 중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평가되어 최종 선발된 사례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꼽는다면, 지원 계열과 연관된 과목 전반의 성취도 측면이라 판단됩니다. 활동 내용과 전공 관련성에서는 차별성이 두드러졌으나, 과목 이수 인원 대비 성취 비율 등 정량적 지표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었다면 더욱 우수한 사례로 제시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충남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학과의 계열이 명확한 학과이기 때문에 해당 계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건축, 건설과 연관된 물리학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니 만약 학교에 물리학 관련 심화 교과목이 있다면 이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열 외 교과목의 경우에는 모든 활동을 계열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보다는 해당 교과 자체에 충실하여 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학업 역량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드러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체제에서 지원자의 개별적 특성과 학업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비교과 영역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활동에서 다룬 주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경우 평가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해당 부분을 강조하여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학마다 전형 유형, 점수 반영 방식, 지원 자격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입시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되고, 정시는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전형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별 특징을 확인한다면 입시를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입시는 결국 학생 본인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입시 준비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맡기기보다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도움받되, 최종적인 결정은 학생 스스로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안내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한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되어 전국 200여 개의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 간 자율협의체입니다.
- 대교협은 고등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대입전형 관리 및 지원,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대학기관 평가인증 등 대학 상호협력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입학기획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안내, 대학입학 관리 및 지원
 - 입학지원·공정성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운영,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지원사업 운영
 -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상담지원, 자료개발, 프로그램 지원) 구성·운영, 대입상담 운영 및 정보 제공, 수시·정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통합 시스템 구축·운영
- 대입상담센터에서는 대입상담포털 “어디가샘 (sam.adiga.kr)”을 기반으로 대입전형정보 안내(대입정보119, 수시·정시 분석자료집, 대입상담자료집, 대입정보매거진 등), 대입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진로진학상담(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전공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입상담교사단 및 현직 교사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원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입상담센터의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대입상담센터의 상담은 전화상담과 온라인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대입상담 경험이 풍부한 500여 명의 교사가 진로, 진학, 학습법 등 대입 전반에 대한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의 사유로 화상상담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전화상담: ☎1600-1615

- 평일 09:00 ~ 22:00

- 무료상담으로 내담자의 전화요금은 별도 부과

■ 온라인상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 대입상담 > 온라인대입상담

- 신뢰도 높은 상담을 위하여 전화 및 온라인상담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는 가운데 전수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의 오류사항은 발견 즉시, 전화상담은 피드백지원교사의 콜백(발신자 1600-1615)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상담은 상담을 작성한 교사가 직접 상담내용을 수정하고 내담자에게는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대입상담센터는 방문상담이 가능한가요?

-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방문상담(대면상담)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수시박람회와 정시박람회, 지역교육청 주관 박람회,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등에서는 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방문상담, 설명회 등의 사항은 지역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사·도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지역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서울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02-3111-362~3	jinhak.or.kr
부산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051-797-6464~6	dream.pen.go.kr
대구	대구진로진학정보센터	053-231-0398	dge.go.kr/jinhak/main.do
인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032-420-8475	cyberjinro.ice.go.kr
광주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062-380-4836	jinhak.gen.go.kr
대전	대전진로융합교육원	042-480-4016	edurang.net/course/main.do
울산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052-210-5479	use.go.kr/jinhak
세종	세종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044-903-8742~4	jinro.sje.go.kr
경기	경기진학정보센터	031-8012-0991, 031-820-0608, 0610	more.goe.go.kr/jinhak
강원	강원진학지원센터	033-258-5628, 5615	jinhak.gwe.go.kr
충북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043-290-2224	cbe.go.kr
충남	충남진학있슈	1588-0795	jinhak.cne.go.kr
전북	전북진로진학센터	063-239-3334, 3341~2	jbe.go.kr/jinro
전남	진로진학지원포털(디딜돌)	1644-8113	jdream.jne.go.kr
경북	경북진학지원센터	054-840-2255	gbe.kr/jinhak
경남	경남대입정보센터(모든)	055-210-5111, 055-753-5122, 055-328-5182	jinhak.gne.go.kr
제주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064-710-0287~8	jinhak.jje.go.kr